

충북 문화선진도 ‘순항’

도립 예술단 창단... 찾아가는 시·군 순회 공연
보은야외음악당 등 기반시설 전체 72곳 → 91곳

2009년 06월 25일 (목) 22:11:10

지영수 ✉ ysji@dynews.co.kr

충북도가 충북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등 핵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5월 19일 155만 도민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기 위해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앞서가는 충북문화상 정립, 창조문화 동력확보 등 5대전략 11개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 제정·공표와 충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진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미래충북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했다.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조문화커뮤니티구축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충북문화예술포럼을 창립,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아이디어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과 예술단체로 구성된 충북도메세나협회를 창립(08년 7월24일)해 올 6월 14개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맺고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메세나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도민의 열렬한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도립예술단(첼버오케스트라)을 창단했으며, 이달 7일 영동을 시작으로 17회의 찾아가는 시·군 순회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4개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올해 보은야외음악당 등 5곳, 내년엔 진천군립미술관 등 10곳을 확충하는 등 전체 72곳에서 9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2010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 지역순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육성해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